

문화로 시민 일상 더 풍성하게 만든다

익산시,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문화시설 연계 전시·체험·공연·강연 등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익산시는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예산을 확대해 기존 체험 중심 프로그램에서 공연·강연·전시 등으로 영역을 넓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보석박물관, 마한박물관, 시립도서관, 가람문화관, 만경강문화관, 백제문화체험관 등 11개 문화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전시 프로그램으로 익산시청 1층에서 특별전 '시청 안 미술관·마중'을 개최했다. 익산예술의전당이 엄선한 소장품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지역 예술의 가치를 일러는 이번 전시는 5월 3일까지 이어진다. 가람문화관에서는 5월부터 '난초·서예작품 전시'가 열려 시민들에게 전통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6월에는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작은 음악회'가 개최돼 문화적 즐거움과 여유



익산시가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를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와 공연에 이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경강문화관 '만경강 행복한 문화소풍', 백제문화체험관 '역사탐방 백제', 가람문화관 '시조 창작 아카데미' 등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보석박물관 '주얼리 만들기', 마한박물관 '오감만족 공예', 마중·유천·황등·

부송도서관 '만들기 일일 강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과 시설별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작가 초청 강연, 음악 공연, 미술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시, 지역 예술가 전시 이어진다

남원아트센터·예가람 문화공간서 다채로운 전시 개최

남원시가 봄철을 맞아 남원아트센터와 예가람 문화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를 잇따라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두 문화공간은 전문 작가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 복지시설 수강생 등 예술적 경계를 허문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 왔으며, 올해에도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

채로운 전시를 마련했다. 남원아트센터는 2017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구 KBS 방송국을 리모델링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며, 지난 3월 24일부터 남원 출신 이을 작가의 추향 Re:PLAY가 전시 중이다. 4월 5일부터는 우이 최은영 작가 등 경남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

원이 주최하는 2026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공유자산 Commonwealth : 함께 쓰는 것들의 관계'의 호남권 거점 시설로 선정되어, 9월부터 10월까지 수준 높은 공예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원시 하정동(동건길 84)에 자리한 예가람 문화공간은 1·2층의 전시 전용 공간과 3층의 창작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 시설로, 이곳에서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김종숙 작가의 민화 개인전 '남원의 숨결, 민화로 피어나다'가 열린다.

이어 5월에는 박경옥 작가의 한국화 전시와 최승후·이필준 작가의 서예와 회화가 결합된 厚畵山圖展(후화산묵전)이 전시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내달 4일 '봄맞이 피리소리'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K-국악스테이지 '봄맞이 피리소리'를 선보인다.

이번 연주에 나선 박범훈류 피리산조보존회는 2013년 창단한 단체로, 박범훈류 피리산조의 보존과 전승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리산조를 비롯해 시나위, 풍류, 민요, 창작국악 등 피리 음악 전반에 걸쳐 연주와 학술 활동을 이어오며, 한국 피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공연은 '푸살·경기사나위'를 시작으로 '태

평소와 소고춤', '대풍류와 승무', '피리와 서도민요', '피리삼중주', '박범훈류 피리 산조' 등으로 구성, 전통 피리 음악의 깊이 있는 선율을 바탕으로 기악과 성악, 춤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피리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박범훈 피리 명인 △송선원 태평소 명인 △피리 최경만 명인 △소고춤 최종실 명인 △승무 채향순 명무 △서도민요 유지숙 명창이 함께해 피리 음악이 지닌 멋과 깊이를 더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6부 '굿패와 수녀' (7)

얼마나 버티겠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척박하고 불품없는 이 동해원 세상에 민들레 홀씨로 날아와 받아하고 뿌리를 뺏고 양분을 빨아드려 한 송이 꽃을 피워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기를 빼앗겼다. 꽃은 짓밟히고 꺾였다. 층층이 절망으로 다져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한 덩어리의 절망의 단져졌다. 남준도 김동출 내외가 던진 절망을 무심히 받아서 마음 안에 갇혔다.

공소는 산 바로 아래에 있었으므로 마을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고, 예베소의 십자가는 높이 떠서 마을을 굽어다보고 있었다.

공소의 훈김은 천천히 사람들에게 스며들었다.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소는 자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공소에서 뿌려주는 희망은 아주 천천히 동해원 사람들에게 조금씩 스며들었다.

공소가 생긴지 10여 년이 흘러가고 남준도 이십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늘 명희를 생각하고, 명희를 생각한 날만큼 가족들이 처참하게 학살되었던 날과 명희의 가족들이 총에 맞아 죽어간던 그날을 기억했다.

명희를 회상하고 남준 가족과 명희 가족이 희생되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남준이 지금 처한 천형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인식해 해주는 작용제여서, 기억하는 일이 결코 남준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건 아니었다.

기름 그날의 환영을 보는 악몽을 꾸기도 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죄값을 치루고 있다는 자위를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라 치부했다.

어느 날 서양인 수녀가 동해원에 왔다. 아무런 즐거움도 뚜렷한 변화도 없는 이곳에서 서양수녀는 동해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보통사람까지 흔하지 않은 마을에서 그것도 서양 일반인도 아닌 수녀가 왔다는 것이다. 동해원 사람들은 동물원 원숭이 보듯 서양 수녀를 봤다.

왜 이곳 나환자촌에 왔을까. 이 나환자촌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서양 수녀가 예배당에 왔는데 왜 왔을까?"

"왜 오긴 그냥 신기해서 구경하러 왔겠지." "여기를 뭐가 신기하다고 구경하러 왔을까. 뭐 다른 일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하얀 얼마나 버티겠어. 곧 떠나겠지." "그렇거야."

동네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경계하고 멀리했다.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키가 큰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왔고 이제 이십대 중반을 넘긴 나이이라고 했다. 눈과 코가 도드라졌고 키가 커서 몹시 이국적으로 보였던 그녀는 그러나 순수한 소녀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말을 모르기에 단순한 실수에도 얼굴이 붉은 장미꽃으로 변했다.

곧 떠날 것 같은 그녀는 그러나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공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한국수녀들과 함께 주로 신자들의 집에 방문하여 한국수녀의 봉사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골격이 컸던 서양수녀는 주로 힘쓰는 일을 도와주는 것 같았다.

그녀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빼꼼히 내밀거나 문을 살짝 열고 그녀를 바라봤는데 사람이 아닌 진귀한 동물들 구경한다는 표정으로 수양수녀를 바라봤다.

동네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곧 익숙해졌는데 이후에는 그녀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또 하지 못했으므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남준도 가끔 길에서 그녀를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듯 남준에게도 얽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남준은 그녀의 미소와 인사를 무시했다.

"왜, 그걸 순대고 그래!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도와주려고 왔으면 뭘 말귀를 알아들어! 잘 대답해 줘.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 가라고!"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